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사회과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뇌는 주관적 예측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다. 자신의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면 뇌는 새로운 정보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활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해결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뇌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느라, 인지 자원의 과도한 소모와 행동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부적응의 한 양상이다. 반대로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면 뇌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어 기존 패턴에 집중해 학습량을 감소시킨다. 이때 뇌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식과 믿음을 과신하는 경우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판단 오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자는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 해석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 검증과 편향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 적응성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 진화적으로 볼 때 개체 수준에서 이와 같은 인지 기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개체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왔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도태되어 왔다.

(나) 적정 가치를 벗어난 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하락을 수반한다. 우리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는 2001년의 인터넷 주식 폭락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가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모형이 아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현재 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식이 최선이다. 이 방식을 적용해야 과거의 주가 하락 사례들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미래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첨단 기술 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적정 가치 모형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이미 적정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태다. 이들 기업의 현재 이익보다 주가가 고평가되었으며, 우리의 적정 가치 모형에 따르면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므로 주가는 적정 가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다) 미래에 대한 확신의 부재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협의 증가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 AI 기술의 혁신으로 미래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뉴스와 국제 무역 분쟁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다. 주변인들은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상승한다는 경험 법칙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에 근거한 직관적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다. 주변인들을 따라 직관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다양한 정보의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주가 동향은 지나치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해도 투자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나는 투자를 하고 싶으나 아무런 투자도 못하고 있다.

[문제 1]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 각각에 나타난 판단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문제 2] (나)와 (다) 각각의 인지 성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활용 모집단위	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문항해설	[문제 1] (가)에 따르면 인지 성향에 따라 정보의 학습률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인지 성향에 의해 (나)와 같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무시, 자신의 모형에 대한 과신 혹은 맹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와 같이 정보에 대한 과도한 반응, 직관적 판단 결여, 행동 지연 혹은 과도한 위험 회피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 성향의 극단적인 오류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 2] 이 문항은 두 인지 성향—(나)의 “확신 기반 직관”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사례와 결부하여 설명하라는 문항이다.
출제의도	[문제 1]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장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나)의 확신에 기반한 직관적 인지 성향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의 인지 성향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지 성향이 사회적 구조와 정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했는지 묻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환경 적응성, 확신, 불확실성, 행동 지연, 판단 오류, 주식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019, 46-59, 72-83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46-55, 64-73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9, 74-83, 116-129쪽 서 혁 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52-61, 70-97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9, 40-49, 68-75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19, 40-49, 68-75쪽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40-155쪽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128-145쪽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32-145쪽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2018, 134-149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8, 126-141쪽
 김종호 외, 《경제》, 씨마스, 2019, 13-17, 27-33, 53-89, 175-181, 195-201쪽
 김진영 외, 《경제》, 미래엔, 2019, 13-31, 47-81, 169-195쪽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2019, 12-21, 30-37, 52-73, 82-85, 174-183, 192-203쪽
 유종열 외, 《경제》, 비상교육, 2019, 11-33, 53-91, 171-193쪽
 허수미 외, 《경제》, 지학사, 2019, 10-17, 28-35, 50-77, 168-175, 183-191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0, 13-49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2019, 10-51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2020, 12-47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2-47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10-47쪽

[기타]

Karl Friston, 《The free-energy principle: a unified brain theory?(Nature Reviews Neuroscience 11(2) 에 수록)》, Nature, 2010
 Peter Dayan, Geoffrey E. Hinton, Radford M. Neal, Richard S. Zemel, 《The Helmholtz Machine(Neural Computation 7(5)에 수록)》,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5
 E.S. Browning, 《Worries Rebound on Bull's Birthday》, The Wall Street Journal, 2010
 N. Gregory Mankiw, Stephan P. Zeldes, 《The Consumption of Stockholders and Nonstockholde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29, Issue 1)》, 1991